



# 제주포럼의 발전과 JDC의 역할

2018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한-소 정상회의 이래 양자 혹은 다자간 정상회의가 6차례 개최되는 등 국제회의와 정상회담 개최지이다.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는 문화외교, 지식외교, 미디어외교 등이 있다. 지식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

한 국제회의의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 구축해 가는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큰 관심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인 하드파워(hard power)보다는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발적 동의나 행위를 이끌어 내는 능력'인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가 부상함에 따라 강대국을 중심으로 국제포럼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제포럼의 출발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한 '유럽 경영 심포지엄'을 들 수 있다. 이후 '유럽 경영 포럼',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보스포럼'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매년 1월 연차총회가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으로는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휴양지 보아오에서 열리는 '아시아를 위한 보아오포럼'을 들 수 있다. 국내에도 몇 개의 국제포럼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나 규모면에서 볼 때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포럼(당시에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됨)이 대표적인 국제포럼이라 할 수 있다.

## 제주포럼의 의의와 성과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래 2011년 제6회 포럼까지 격년제로 개최되었고, 제6회 포럼부터 명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변경하고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5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제주포럼 주제의 핵심단어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동아시아→아시아로 관심지역이 확대되어 왔고, 평화와 공영→상생과



공영→신뢰와 화합으로 관심 범위는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 참가자를 살펴보면 외국의 현직 인사로는 장관이 몇 명 참석했고, 전직 인사로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직 총리가 참석하는 가운데 제1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제2회와 제4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참가자 수는 제1회 350명에서 제12회 5,500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국가 수는 제1회 9개국에서 제12회 81개국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참여기관 수나 전체 세션 수에서도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양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 제주포럼의 과제와 새로운 기회

지난 16년 동안 12회에 걸쳐 제주포럼이 보여 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높은 국제포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최근 남북 및 북미 간 화해 무드의 조성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이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을 한 중국 보아오포럼만 하더라도 국가 주석의 참석 여부가 포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제포럼에서 국가수반의 참석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최국 국가수반의 포럼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국의 고위층 수준이 결정된다. 과거 3차례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라도 대통령 참석이 관례화되어 제주포럼이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와 번영'의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주포럼의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시기에 제주포럼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되던 초기 10년의 기간에는 '평화'를 화두로 던졌으나, 연례 개최로 바뀐 2011년 이후에는 '평화'와 '번영'을 모토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평화'만으로는 제주포럼의 장기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의제는 외교안보, 경제경영, 환경기후변화,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 등 5개 분야로 확장되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화두가 '평화와 번영'이었으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향후 제주포럼의 정체성이 '평화와 번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제주포럼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실행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4회 제주포럼에서는 그 결과물로서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제주프로세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포럼은 냉전시대 유럽지역 국가들의 긴장상태를 관리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과정인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동북아에서 논의되어 온 다자안보협의체의 실현을 전제로 하는 '제주프로세스'의 산실이 되었다. 향후 제주포럼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국제 및 국내 포럼과 연계하여 분업 및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다보스포럼 및 보아오포럼과 연계하여 교차 참석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약칭 '제주 군축회의')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포럼사업과 분업 및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주포럼 발전을 위한 JDC의 역할

제주포럼은 참여기관들이 직접 주제를 개발하고 세션을 운영하는 소위 콘도미니엄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포럼의 후원기관으로서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세션 운영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 3년 간 제주포럼 JDC 세션의 주제를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친환경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현재와 미래' 등 주로 JDC과 통

상적으로 해 오던 국제자유도시의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 그러나 제13회 제주포럼 JDC 세션의 주제를 살펴보면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공공의 새로운 역할',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도의 발전 방안', '지역의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JDC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등 국제자유도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시키기 위해 '성숙한 개발'을 모토로 한 JDC의 신 경영방침에 따른 바람직한 변화로 이해된다. 향후 단회적인 주제 선정으로 끝나지 말고 큰 그림 하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제주포럼의 콘도미니엄 운영방식 하에서 JDC가 수범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8 제주포럼과 함께한 JDC 세션

구분	시간	주제
1일차	11:00-12:30	스마트시티의 미래
	13:30-15:00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공공의 새로운 역할
	17:10-18:40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차별화 및 경쟁력
2일차	17:10-18:40	[특별세션] 아시아 국제교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JDC의 발전 방향
3일차	17:40-19: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20:00-20:30	JDC 평화 콘서트